

The Emergence of Active Ageing Generation and Its Social Implication in Korea:  
Focusing on Baby Boomers' Social Relationship

Myoung-Jin Lee, Ju Hee Son, and Su Rin Park  
Department of Sociology  
Korea University

E-mail: [leemj@korea.ac.kr](mailto:leemj@korea.ac.kr)

Prepared for The 89<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Japan Sociological Society, Kyusyu University Ito Campus,  
Oct. 8 - Oct. 9, 2016.

액티브 에이징 세대의 등장과 그 사회적 함의: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명진 李名鎭

손주희 孫珠僖

박수린 朴秀璘



## I. 머리말

향후 10년 내로 한국사회는 노년세대가 주력세대가 되는 급격한 노령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1%이며, 2030년 24.3%, 2040년 32.3%, 2060년 40.1%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는 전체 인구구성비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 20.0명에서 2015년 94.1명으로 4.7배나 증가하였으며, 25년 후인 2040년에는 현재의 3배 이상 증가한 288.6명이 되어 인구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생산가능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에 17.9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이 되어 4배 이상 증가 예상된다(통계청, 2015).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UN이 규정한 노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사회는 노년 인구의 비율이 이미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2018년에는 14.5%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9%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8년과 8년에 만에 각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까지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상치는 일본의 24년과 12년, 프랑스의 115년과 41년, 미국의 71년과 15년보다 훨씬 빠른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의료비와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험인구의 12%인 노인들의 진료비가 21조원을 넘어 36.8%에 달한다. 평균 치료비가 타 연령대의 3배다. 그중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입원치료비가 96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전체 사회에 구조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양한 부담을 주고 있다. 복지제도 유지에 따른 재정 문제의 심화, 공적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의 만성적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의료정책과 복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고,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노년기의 절망과 분노 같은 심리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에 따른 하나의 방안으로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한' 노년에 대한 향후 정책적, 기술적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년세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는 기존의 노년세대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근대 이후 한국사회가 경험한 급격한 역사적 변동은 각 세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태도에 많은 차이를 불러 일으켰다. 각 세대의 독특한 특성은 다양한 유형의 세대론을 만들어 내었다. 투표 행위 같은 정치 참여나 사회적 가치나 태도뿐만 아니라 여가나 소비 같은 행위도 세대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이명진, 2003; 최섯별, 이명진, 2011). 지금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쟁 직후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출생률이 급증한 세대를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baby boomers)를 2차 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1965년에 태어난 세대로 본다. 그 수는 7,8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

본 역시 2차 대전 직후 47년부터 49년까지 출생한 단카이 세대(団塊の世代) 806만명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6.25전쟁 이후 55년생부터 산아 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64년생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 보는 의견이 많다. 그 수는 약 9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곧 이 세대가 한국사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적 혹은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들은 교육제도, 문화/예술, 학생운동, 민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만의 생활사를 경험하고 독특한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부문에서는 고교평준화 같은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에 사회전반에 입시 지옥과 과외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정치적인 민감한 시기를 보내면서 적극적인 저항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였고, 최근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의 결정하는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 안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고용이나 창업 등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찾을 수 있었던 세대였다.

최근에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고용이나 복지 혹은 건강보험이나 연금 문제 같은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나 정서적인 문제 같은 미시적인 문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거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최근의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건강은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웰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영역인 사회적인 웰빙을 포함한다(WHO, 2016).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추구하도록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세대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액티브 에이징 관련 정책을 실시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동시에 삶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회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은 어떠한가? 물론 다른 세대와 비교하여 그 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현황이 이들의 건강과 사회,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논의는 급격한 인구구조와 사회변화라는 상황을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대응과 노년인구의 건강한 삶에 중요한 함의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베이비 붐 세대

서구에서는 코호트 관점에서 세대문제를 다룬 만하임의 뒤를 이어, 1960년대 학생들의 체제 저항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세대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sup>1</sup> 그러나 서구에 비해 사회·역사적 변동을 급격하게 겪은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는 세대연구가 심층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1990년대 한국사회학회(1990)의 세대연구와 조혜선(1990)의 계량적 연구를 선두로 하여 세대문제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만하임의 의미에서 또는 서구의 세대연구처럼 코호트에 입각해 세대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단순히 연령별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거나 코호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후 주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관계나 차이, 세대 갈등에 주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코호트적 시각에 입각하여 분석하기보다는 주로 각 세대 간의 심리적인 갈등구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세대에 관련된 이론적 논의 또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세대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2000)이 '386세대'의 가치관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와 한국사회학회(2002)가 '왜 다시 세대인가?'라는 주제로 연 심포지엄은 한국 사회과학계의 세대연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세대문제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더욱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세대 연구는 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져왔다. 주로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이나 태도, 생활양식, 정치성향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조성남·윤옥경, 2000; 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황상민·김도환, 2004; 김두식, 2005; 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5; 김우성·허은정, 2007; 박재홍, 2010; 전상진, 2010; 박권일, 2012; 박재홍·강수택, 2012; 김수정·최술기·최선태, 2014), 특히 최근에는 잉글하트의 가설을 바탕으로 세대별 탈물질주의 가치의 변화 추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박재홍·강수택, 2012).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세대 간 차이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결혼, 동거, 이혼, 부부 성역할과 같은 가족가치 측면에서는 세대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은기수·이윤석, 2005), 정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박희봉·이희창, 2006). 그리고 전통적 가

<sup>1</sup> 한 예로 로퍼와 벵슨(Lafer and Bengtson, 197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테크놀로지 발전과 조직유형의 변화가 대안적 가치관·생활양식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데 '중간계급' 출신 청년들이 대안 모색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60년대 저항문화의 흐름을 (만하임의) 세대단위와 동일시하면서, 급진주의, 방랑주의, 공동체주의, 신앙부흥주의라는 네 유형의 세대단위를 예시한다. 이들은 또한 이 네 가지 유형이 60년대 서구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도 발견된다고 지적하였다(박재홍, 2001).

치, 자유/평등주의 가치, 물질/탈물질 가치, 법·제도 가치의 변화에 있어서도 세대 간 차이를 보인다(박희봉·이희창·전지용, 2008).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비슷한 출생 시기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한 가치와 태도, 행위양식을 갖는다는 코호트적 시각의 세대 구분이 아닌 단순한 연령대 구분이나 이분법적인 신세대와 기성세대로 구분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한편, 특정 세대에 주목한 연구들은 보다 코호트적 시각에서 세대를 구분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86세대에 대한 논의(조대엽, 2002; 고길섭, 2010)나 전후 베이비붐 세대 연구(방하남, 2011; 정경희, 2011; 차성란, 2012; 정경환, 2013; 여관현·박민진, 2014; 정순돌·전혜상·정주희, 2015), 컴퓨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N세대에 관한 논의(황상민, 2000; 정성호, 2003)등을 통해 그들만이 공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세대에 내재한 고유한 특성이 태도, 가치, 의식, 행위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세대에 관한 특성을 역사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하여 주로 기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여러 세대를 비교하여 살펴보지만,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세대 논의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는 전후 다산의 시대에 출생하여 수적 다수집단을 이루고, 그들만의 생활사 경험을 통해 독특한 문화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조망을 받지 못한 세대였다. 주로 386세대를 부각시키기 위한 비교집단으로 등장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나 노후 문제 등 이들과 관련된 각종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베이비붐 세대가 점차 사회문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였다(박길성 외, 2005).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학문적 논의도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한국사회에서만 존재하는 세대는 아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한국사회보다 10년 정도 앞서 베이비붐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미

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분명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해 온 세대이다(박길성 외, 2005). 이들은 특유의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제도화하고, 부모세대와는 차별화된 가치관을 보이며 부모세대의 권위에 반항하였다. 동시에 동조성을 강조하던 당시 사회분위기에 저항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근간이 된 시민적 의무(civic duty)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한편,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는 부모세대와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평등이념에 기반을 둔 교육을 받았으나 여전히 부모세대의 가치관을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일본의 전통적인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학생운동의 주역이었으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

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sup>2</sup>한 이들은 정치적으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초기에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보내면서 정치적 억압을 느꼈던 세대이다. 전후세대와 이 세대가 특히 다른 점은 경제적인 측면이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는 절대적인 측면과 상대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했다. 1954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약 400달러에 불과했지만, 1961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약 1,600달러에 달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린 것은 아니지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어느 세대보다도 청년기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세대와 달리 사회적인 경험도 다르다. 사실 조출생률이 28.5%에 이르는 이들 세대의 압도적인 숫자로 인해 교육제도를 포함해서 여러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고교 평준화, 졸업정원제 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청바지나 포크송으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의 대중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압축적 성장을 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복합 변화를 경험한 대표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다.

## 2. 노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 가.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노년층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이전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Wenger, Davies and Shahtahmasebi, 1995; Rowe and Kahn, 1997; Litwin; 2001). 성공적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년세대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긍정적 역할이 확인되었으며(김영범·박준식, 2004; 이호성, 2005; 윤현숙·허소영; 2007), 친족 외의 대인관계 또한 그 수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기홍, 2005).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관계 실태에 중심을 둔 연구들은 대부분 그들의 관계망이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친족, 친구, 이웃, 단체 구성원을 포함한 노인들의 사회적

---

<sup>2</sup> 베이비붐 세대를 구분함에 있어 넓게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1955년부터 산아 제한이 시작되기 직전인 1961년까지로 보는 의견이 많다 (박길성 외, 2005; 이명진, 2005). 또한 이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386세대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출생한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로 설정하였다.

관계망 크기는 청·장년층의 2/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노인층의 1/4은 홀로 고립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노년세대의 사회적 관계 구성은 청·장년층에 비해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친구·이웃으로 대표되는 비친족 관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정경희, 1995).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고립형, 동거 자녀와 주로 교류하는 전통적 가족중심형, 비동거 자녀와 자주 교류하는 수정 가족중심형, 비친족과 자주 교류하는 지역사회 중심형, 자녀와 지역사회 모두와 활발한 교류를 나누는 다층형으로 유형화한 결과, 한국 노인의 대부분은 가족중심형이며 지역사회중심형과 다층형 비율은 낮아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박경숙, 2000; 이소정·정경희·손병돈·이미숙·홍백의·이은진, 2008).

공식적 관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참여에 있어서도 한국노인들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단체 활동은 주로 친목활동, 종교활동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동창회, 향우회에 편향되어 있는 제한적인 사회참여활동 양상을 보였다(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박보미, 2014; 허준수, 2014). 또한 노인들은 노후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모임과 같은 관계적 활동보다는 소일거리나 교육과 같은 생산적 활동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노인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 적극적인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정병은·이기홍, 2009).

최근에는 노년세대 사회적 관계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는 연구들도 나타났다. 친족과 친구, 이웃을 포함한 노년세대의 비공식적 관계망의 크기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특히 친족관계망이 감소하는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윤경·정경희·염지혜·오영희·유혜영·이은진, 2010). 공식적 관계를 나타내는 모임 및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노년세대의 참여율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50% 이상의 노인은 기존의 낮은 참여율을 유지하는데 그쳤으며, 약 25% 정도는 사회참여 수준이 기존보다 감소하는 연령효과를 보여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가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경인, 2014).

#### 나.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2010년부터 본격화되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노후준비 방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다룬 연구들은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건강, 생활수준,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장은주, 2016).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신체적, 경제적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강유진, 2005; 이정화, 2009; 김주성·최수일, 2010).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크게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와 구조적 측면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실태를 살펴보고 유형화하는 연구로 나누어진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가족·이웃·친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수, 접촉 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가 강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호할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민·김동현, 2015). 베이비붐 세대 남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까운 주변대인 관계에서 얻는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삶의 질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김희숙·유광자, 2013). 또한 관계의 표면적 특성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가 느끼는 주관적인 관계 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돌·이현희, 201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친구·이웃과의 교류, 사회참여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사회적 관계가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교적 가까운 비공식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임이나 단체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 공식적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활동을 유형화한 결과, 소득활동에만 집중하거나 혼자 혹은 가정 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유형에 비해 시민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하는 유형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았다(김윤정·강현정, 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활동 참여와 가족 내의 원만한 관계 외에도 넓은 범위에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측면을 살핀 연구들은 주로 관계 만족도, 접촉빈도, 지지 형태를 통해 주변 관계망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주로 배우자, 부모, 자녀라는 일차적 비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베이비붐 세대는 대체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이는 남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문정화·김미혜, 2015). 이들은 노후생활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대부분 배우자를 꼽아, 베이비붐 세대가 부부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경희 외, 2010).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2/3 이상은 부모가 생존해있고, 대부분 그들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도구적(집안일 도움)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관계 만족도가 높고, 부모 관계에 비해 접촉빈도와 경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았다(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유혜영, 2010).

공식적 관계의 실태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단체 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다루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가량이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정경희 외, 2010), 이들의 단체 활동 참여율은 젊은 에코세대<sup>3</sup>와 비교하였을 때도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12).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노후 삶에 있어서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자원봉사활동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종인, 2012; 김종인·김윤정, 2013). 특히 이전 노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과 참여의사 비율은 각

---

<sup>3</sup>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로, 베이비붐 세대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여 1979~1992년생으로 정의하였다(통계청, 2012).

각 2배, 1.6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연령효과보다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이현기, 2013).

그러나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분석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에 국한되었고, 공식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참여나 단체 활동에 있어서는 단순히 몇 가지 유형에 제한적으로 집중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친구, 친족, 이웃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 활동 및 단체 활동 참여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사회적 관계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 Ⅲ. 자료와 측정

#### 1. 연구자료

여기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 세대의 사회적 관계 교류 실태와 단체 활동 실태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와 『10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베이비붐 세대의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실태와 관계 만족도를 포함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이를 이전의 노년 세대와 비교하기 위하여 각 자료에서 1961년도 이전 출생자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1>은 각 세대 구분과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선행연구의 세대 구분에 따라 1955년~1961년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하고, 1954년 이전 출생의 노년세대 중 41년을 기점으로 이전 출생은 '한국전쟁세대', 42년부터 54년생까지를 '전후세대'로 분류하였다(이명진, 2005). 이에 따라 『10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중 1961년 이전에 출생한 인구(n=7,342)를 베이비붐세대(n=1,471)와 전후세대(n=2,895), 한국전쟁세대(n=2,976)로 나누었고, 『2014년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 또한 1961년 이전 출생인구(n=7,029)를 베이비붐세대(n=1,698)와 전후세대(n=2,848), 한국전쟁세대(n=2,483)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표 1> 세대 구분과 주요 특징

세대구분	출생년도	2016년 연령(만)	고등학교 졸업연도	주요 정치적 사 건	1인당 국민 총소득 (달러)	교육제도
한국전쟁 세대	1941년 이전	75세 이상	1960년 이 전	한국전쟁	-	
전후 세대	1942- 1954	62-74세	1961-1971	4.19 5.16	-	
베이비붐 세대	1955- 1961	55-61세	1972-1978	유신 10.26	320-1,1431	고교평준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정치, 사회, 문화 변화는 고등학교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함 (참조, 이명진, 2002).

## 2. 변수 측정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는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통해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와 단체 활동 참여빈도를 측정값으로 사용하였다. 친구, 친척, 이웃의 접촉빈도는 “[응답자 성명]님과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이분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일 년에 거의 볼 수 없음”,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단체 활동 참여는 “[응답자 성명]님께서 아래 단체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 “종교모임”,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여가/문화/스포츠 관련단체(노인대학 등)”,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없음” 등의 항목으로 응답되었다. 총 7개의 유형별 활동 참여는 중복 응답으로 측정되어 한 가지 주된 활동 유형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적인 단체 활동 참여 수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 모임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 “그 활동에는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거의 매일(일주일에 4회 이상)”,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두 번 정도(2주에 한번 정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일 년에 서너 번 정도(3~4개월에 1번)”, “일 년에 대여섯 번 정도(2개월에 한번 정도)”, “일 년에 거의 활동하지 않음”, “거의 활동하지 않음”의 항목으로 참여 빈도가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빈도가 1년에 1회 미만인 “거의 활동하지 않음” 항목은 비참여로 처리하였다.

친구, 친척, 이웃 접촉 빈도와 단체 활동 참여 빈도는 각각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없거나 단체 활동 비참여의 경우는 0으로 설정하고, 그 외 접촉과 참여 빈도는 그 정도가 빈번한

순으로 정렬하여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부여하였다. 접촉 및 참여 빈도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 교류가 활발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그 평균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단체 활동 참여율은 세대별로 인구수 대비 모임에 참여하는 수로 계산하였다.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는 친구, 친척, 이웃, 단체 활동의 접촉 및 참여 빈도를 합산한 평균치이다.

한편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10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노년 세대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차이를 알기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다양한 형태의 소득들을 모두 포함한 경상소득을 사용하였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취합한 값으로, 만원 단위로 연속적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 노년 세대의 친구, 친척, 이웃의 접촉빈도와 단체 활동 참여빈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주요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두 세대 간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활동 실태와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어떠한 양상으로 교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의 양적, 질적 차원 모두를 이전 노년 세대와 비교해 봄으로써 종합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이차원상에 나타나는 양상을 통해 세대별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 IV. 분석

##### 1. 세대별 일반적 특성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응답자 7,029명의 세대별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전쟁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모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한국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상반되게 베이비붐 세대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간 가구소득은 한국전쟁 세대에서는 1,000만원 미만, 전후 세대는 1,000~3,000만원 미만, 베이비붐 세대는 3,000~5,0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전쟁 세대는 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며,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 전후 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율이 한국전쟁 세대만큼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많고, 취업자의 비율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세대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한국전쟁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998	40.19	1,274	44.73	715	42.11
	(N=7,029) 여성	1,485	59.81	1,574	55.27	983	57.8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796	72.33	1,164	40.87	230	13.55
	중학교 졸업	247	9.95	627	22.02	312	18.37
	(N=7,029) 고등학교 졸업	305	12.28	779	27.35	859	50.59
	대학교 졸업 이상	135	5.44	278	9.76	297	17.49
연간 가구소득	1,000만원 미만	1,177	48.54	545	19.26	75	4.42
	1,000~3,000만원 미만	806	33.24	1,279	45.21	460	27.14
	(N=6,949) 3,000~5,000만원 미만	275	11.34	665	23.51	618	36.46
	5,000만원 이상	167	0.89	2,829	12.02	542	31.98
근로활동	취업자	369	14.86	1,162	40.80	1,124	66.23
	(N=7,028) 실업자	4	0.16	17	0.60	25	1.47
	비경제활동인구	2,110	84.98	1,669	58.60	548	32.29

출처: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2. 사회적 관계 교류 실태

세대별 친구, 친척, 이웃의 접촉빈도를 살펴보았다. <표 3>은 친구, 친척, 이웃에 대한 접촉 빈도 평균을 제시하고 있다. 친구, 친척, 이웃 간 접촉 빈도는 전후세대가 가장 높았고 한국전쟁 세대가 가장 낮았다. 세 집단에 대한 사후 분석 결과, 전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차이가 없지만, 두 세대 모두 한국전쟁 세대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후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세대에 비해 친구, 친척, 이웃 사이에 더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표 3> 세대별 친구, 친척, 이웃과의 접촉빈도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
한국전쟁 세대	6.09	3.01	10.48***
전후 세대	6.39	2.35	
베이비붐 세대	6.37	2.15	

주: \*\*\*p<.001

<표 4>는 각 유형별 단체 활동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모임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었고, 여가/문화/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 기타는 한국전쟁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선행연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기존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김종인, 2012; 김종인·김윤정, 2013; 이현기, 2013),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은 매우 낮다. 한편 친목모임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임인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참여율이 두드러진다. 친목모임과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는 두 이전 노년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세대별, 성별 단체 활동 참여율

활동유형	세대구분	전체 참여율(%)	성별 참여율(%)	
			남	여
종교모임	한국전쟁 세대	15.79	남	11.42
			여	18.72
	전후 세대	18.22	남	12.56
			여	22.81
	베이비붐 세대	17.14	남	9.09
			여	22.99
친목모임	한국전쟁 세대	47.08	남	52.81

		67.70	여	43.23	
			남	72.68	
	전후 세대			여	63.66
	베이비붐 세대	71.67	남	70.77	
여가/문화/스포츠	한국전쟁 세대	3.67	남	5.21	
			여	2.63	
	전후 세대	5.83	남	5.73	
			여	5.91	
	베이비붐 세대	5.42	남	5.17	
			여	5.60	
동창회/ 향우회/ 증친회	한국전쟁 세대	6.00	남	12.42	
			여	1.68	
	전후 세대	16.36	남	26.45	
			여	8.20	
	베이비붐 세대	23.79	남	34.69	
			여	15.87	
자원봉사	한국전쟁 세대	0.28	남	0.30	
			여	0.27	
	전후 세대	0.74	남	0.63	
			여	0.83	
	베이비붐 세대	0.53	남	0.14	
			여	0.81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한국전쟁 세대	0.12	남	0.30	
			여	0.00	
	전후 세대	0.28	남	0.47	
			여	0.13	
	베이비붐 세대	0.12	남	0.14	
			여	0.10	
기타	한국전쟁 세대	1.17	남	1.20	
			여	1.14	
	전후 세대	1.30	남	1.02	
			여	1.52	
	베이비붐 세대	0.82	남	0.28	
			여	1.22	

<표 5>에 나타난 세대별 단체 활동 참여 빈도 평균을 살펴보면, 친목 모임, 여가/스포츠/

문화 활동,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친목모임의 경우 세대별 참여빈도 평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져, 베이비붐 세대가 가장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점수가 이전 노년층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들이 매우 활발한 연고 기반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가/문화/스포츠 활동은 전후 세대가 가장 높고 한국전쟁 세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세대별·성별 단체 활동 참여빈도

활동유형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F	성별 평균	
종교모임	한국전쟁 세대	1.09	2.57	1.75	남	0.79
					여	1.29
	전후 세대	1.22	2.66		남	0.86
					여	1.51
	베이비붐 세대	1.14	2.57		남	0.60
					여	1.52
친목모임	한국전쟁 세대	3.12	3.55	37.62***	남	3.29
					여	3.01
	전후 세대	3.73	2.85		남	3.93
					여	3.56
	베이비붐 세대	3.87	2.68		남	3.76
					여	3.95
여가/문화/ 스포츠	한국전쟁 세대	0.26	1.38	4.70**	남	0.37
					여	0.19
	전후 세대	0.39	1.63		남	0.37
					여	0.40
	베이비붐 세대	0.35	1.51		남	0.32
					여	0.37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한국전쟁 세대	0.25	1.07	114.79***	남	0.51
					여	0.08
	전후 세대	0.70	1.70		남	1.11
					여	0.36

	베이비붐 세대	0.97	1.89		남	1.43
					여	0.64
자원봉사	한국전쟁 세대	0.02	0.38	1.75	남	0.02
					여	0.02
	전후 세대	0.04	0.51		남	0.03
					여	0.05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베이비붐 세대	0.03	0.40	1.08	남	0.00
					여	0.04
	한국전쟁 세대	0.01	0.18		남	0.01
					여	0.00
기타	전후 세대	0.01	0.26	1.27	남	0.02
					여	0.01
	베이비붐 세대	0.01	0.17		남	0.01
					여	0.01
	한국전쟁 세대	0.09	0.85		남	0.09
					여	0.09
전후 세대	0.10	0.89	남	0.08		
			여	0.12		
베이비붐 세대	0.06	0.69	남	0.02		
			여	0.09		

주: \*\*p<.01, \*\*\*p<.001

### 3. 세대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표 6>은 5점 척도로 측정된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단순 평균을 세대별로 나타낸 표이다. 세대별 만족도 평균은 한국전쟁 세대 3.61, 전후 세대 3.71, 베이비붐 세대 3.72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세대일 수록 관계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대 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고려하지 못한 단순 수치로서,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lt;표 6&gt; 세대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세대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한국전쟁 세대	3.61	0.65	1	5
전후 세대	3.71	0.61	1	5
베이비붐 세대	3.72	0.64	1	5
전체	3.67	0.63	1	5

<표 7>은 베이비붐 세대, 전후 세대, 한국전쟁 세대 집단의 구분과 함께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인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함께 변수로 투입하여 분산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세대별, 소득수준별, 주관적 건강상태별, 성별, 교육수준별 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서도 세대구분과 주관적 건강상태, 성별, 교육수준은 모두 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7&gt; 세대별 사회적 관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변량	소득수준	53.97	1	53.97	148.33***
주효과	(결합)	185.09	11	16.83	46.25***
	세대구분	12.25	2	6.13	16.84***
	주관적 건강상태	156.70	4	39.18	107.67***
	성별	9.53	1	9.53	26.19***
	교육수준	7.11	4	1.78	4.88**
잔차		2,513.46	6,908	0.36	
전체		2,778.27	6,962	0.40	

주: \*\*p<.01, \*\*\*p<.001

<표 8>은 베이비붐세대, 전후 세대, 한국전쟁 세대를 구분하는 변수와 함께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한 다중분류분석(MCA) 결과이다. 이는 세대 구분만 고

려한 사회적 관계 만족도 평균과 달리, 함께 투입된 다른 독립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수치를 나타내준다. 이 경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고 나면 한국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의 관계만족도 평균은 각각 3.70, 3.69로 큰 차이가 없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은 3.58로 이전 노년세대들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면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이전 노년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표 8> 세대별 관계 만족도 중분류분석(MCA)

		N	예측평균		편차	
			수정 없음	요인 및 공 변량에 대해 수정됨	수정 없음	요인 및 공 변량에 대해 수정됨
세대구분	한국전쟁 세대	2,760	3.61	3.70	-0.06	0.03
	전후 세대	2,784	3.71	3.69	0.04	0.02
	베이비붐 세대	1,419	3.72	3.58	0.05	-0.09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이 아주 안좋다	126	3.17	3.19	-0.50	-0.48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2,222	3.48	3.49	-0.19	-0.18
	보통이다	2,311	3.69	3.69	0.02	0.02
	건강한 편이다	2,148	3.85	3.84	0.18	0.17
	아주 건강하다	156	4.03	4.03	0.36	0.36
성별	남성	2,758	3.66	3.62	-0.01	-0.05
	여성	4,205	3.67	3.70	0.00	0.03
최종학력	무학	1,752	3.57	3.62	-0.10	-0.05
	초졸	2,178	3.66	3.68	-0.01	0.01
	중졸	1,201	3.68	3.66	0.01	-0.01
	고졸	1,362	3.75	3.71	0.08	0.04
	대졸이상	470	3.81	3.75	0.14	0.08

#### 4. 세대별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와 관계 만족도

세대별 사회적 관계를 양적 측면에서 교류 및 접촉 빈도, 질적 측면에서 관계 만족도로 나누어 보고 각 노년층 세대들이 두 측면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의 양적 측면은 친척, 친구, 이웃의 접촉 빈도와 단체 활동 참여 빈도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를 나타내었고, 질적 측면은 주요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세대별 관계만족도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9>를 토대로 사회적 관계의 교류 정도와 관계 만족도를 이차원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전체 세대 내 사회적 관계의 교류 정도는 한국전쟁 세대,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 순으로, 연령이 낮은 세대일수록 교류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한국 전쟁 세대는 교류 정도가 작아도 만족도는 높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만족도는 교류 정도 대비 매우 떨어진다.

<표 9> 세대별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와 만족도

세대구분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
한국전쟁 세대	1.37	3.70
전후 세대	1.57	3.69
베이비붐 세대	1.60	3.58

<그림 1> **에러! 북마크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대별 사회적 관계 교류 정도와 관계 만족도



## V. 요약과 토의

이 연구는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노년인구의 구성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구성 요소인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인구에게 사회적 관계는 육체적 요소나 정신적 요소만큼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유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한 노인은 거시적으로 복지나 의료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시적으로도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앞으로 노년 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전쟁 직후 불안감에서 벗어나면서 출생률이 급증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가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많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특한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었다. 어떻게 본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활동성은 저하되지 않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을 추구하는데 적절한 세대이다. 이 세대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반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동시에 정치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세대이다. 그러나 동시에 삶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노년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기존 노년세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각 세대별 단체 활동 참여율과 접촉빈도를 살펴보면, 종교모임 참여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여가/문화/스포츠 활동, 자원봉사,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활동은 한국전쟁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친목모임과 연고를 기반으로 하는 모임인 동창회/향우회/종친회 활동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코호트적인 특징일 수 있으나 이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미 은퇴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대와 현재에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연고나 사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보다 공적 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에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과 공적 신뢰를 증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한국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 의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역시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와 같이 시민성과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환경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앞으로의 사회적 과제이다. 더욱이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다양한 경험과 욕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이니 만큼, 이러한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

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관계의 정도와 만족도를 같이 고려하면, 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사회적 관계의 정도는 한국전쟁 세대가 가장 낮고, 전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한국 전쟁 세대는 교류 정도가 작아도 만족도는 높은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적 관계의 정도는 높아도 만족도는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각 세대의 사회적 교류의 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으나, 이러한 관계의 정도와 만족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앞으로 노년세대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사회적 관계는 다른 노년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사적 신뢰에 기반한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어쩌면 베이비붐 세대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교육과 경험을 갖춘 최초의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전쟁 같은 역사적 격변을 겪지 않고,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다. 또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경제적 기회도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이 누릴 수 있었다.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봉사 같은 공적 관계와 관련이 많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 관계는 사적 관계나 개인적인 이익에 기반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효율적 공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도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민성과 공적 신뢰의 고양이라는 한국사회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고길섭. 2010. "386세대의 '그날' : 주체형성, 세대정신, 그리고 삶과 정치." 『문화과학』 62: 113-135.
- 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김두식. 2005. "환경주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에 대한 태도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9: 135-181.
- 김미혜·문정화·신은경. 2012. "베이비부머의 부부관계특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예비노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2011-239.
- 김수정·최슬기·최선헌. 2014. "대중문화와 세대: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69-94
- 김영범·박준식. 2004. "한국노인의 가족관계망과 삶의 만족도." 『한국노년학』 24: 169-185.
- 김우성·허은정. 2007. "소비자 체험마케팅의 핵심적 특성들과 기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89-101. 강유진. 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김윤정·강현정. 2013. "베이비부머 사회활동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만족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3): 1090-1099.
- 김종인. 2012.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욕구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종인·김윤정. 2013.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사회참여 의향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2): 655-664.
- 김주성·최수일. 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복복지학』 15(3): 97-119.
- 김형민·김동현. 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89-100.
- 김희숙·유광자. 2013. "베이비붐 세대 남성의 주관적 삶의 질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4): 461-470.

- 문정화·김미혜. 2015. "베이비부머의 배우자 관계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31(2): 105-132.
- 박경숙. 2000.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학』, 34(가을): 621-647.
- 박권일. 2012. "세대와 정당정치." 『황해문화』, 74: 54-72.
- 박길성·함인희·조대엽. 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 경험과 문화』. 집문당.
- 박재흥.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_\_\_\_\_.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재흥·강수택. 2012. "한국의 세대 변화와 탈물질주의." 『한국사회학』 46(4): 69-95.
- 박희봉·이희창. 2006.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1): 125-150.
- 방하남. 2011. "베이비붐 세대 : 그들은 누구인가?" 『노동리뷰』 71: 5-9.
- 여관현·박민진. 2014. "베이비붐 세대와 에코세대의 사회특성에 대응한 서울시 지역정책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31-55.
- 윤현숙·허소영. 2007. "노인의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 『한국노년학』 27: 649-666.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기흥. 2005. "한국 노인의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한국노년학』 25: 1-21.
- 이명진. 2005. 『한국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삼성경제연구소.
- 이소정·정경희·손병돈·이미숙·홍백의·이은진. 2008.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윤경·정경희·염지혜·오영희·유혜영·이은진. 2010.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화. 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이현기.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 및 참여의사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227-256.
- 이호성. 2005.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25: 123-138.
- 이희창·박희봉·전지용. 2008.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51-76.

- 장은주. 2016.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 동향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상진. 2010. "세대경쟁과 정치적 세대." 『한·독사회과학논총』 20(1): 127-150.
- 정경환. 2013. "베이비부머세대(baby-boomer generation) 특징에 관한 연구." 『글로벌시니어 건강증진개발원 논문집』 3(2): 5-11.
- 정경희. 1995. "노인들의 사회적 연계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5: 52-68.
- \_\_\_\_\_. 2011. "베이비 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포럼』 174: 5-10.
- 정경희·오영희·강은나·김재호·선우덕·오미애·박보미.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소정·이윤경·김수봉·선우덕·오영희·유혜영. 2010.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병은·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 953-970.
- 정성호. 2003. "N세대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의의." 『인문과학연구』 11: 389-413.
- 정순돌·이현희. 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 년과 2008 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1.
- 정순돌·전혜상·정주희. 2015. "베이비부머의 라이프스타일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67: 61-82
- 조대엽. 2002. "한국의 사회운동세대, 386." 『사상』 54: 125-147.
- 조성남, 윤옥경. 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총』 5: 103-135.
- 조혜선. 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성란. 2012.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67-83
- 최경인. 2014. "상지대학교 노년기 사회참여의 변화궤적: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 및 예측요인."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셋별, 이명진. 2011. "한국인의 영화 취향 구조: 영화취향을 통해 드러나는 한국사회의 상징적 배제." 『여가학 연구』 9(1): 1-26.
- 통계청. 2012. 「보도자료(2012.8.2.)」.
- \_\_\_\_\_. 2015.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235-263.
- 황상민. 2000. "신세대(N 세대)의 자기 표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9-19.
- 황상민·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황상민·양진영·강영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Laufer, Robert, and Vern Bengtson. 1974. "Generations, Aging, and Social Stratification: on the Development of Generational Units." *Journal of Social Issues* 30(3): 181-205.
- Litwin, Howard. 2001. "Social network type and morale in old age." *The Gerontologist* 41(4): 516-524.
- Rowe, John, and Robert Kahn.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Wenger, Clare, Richard Davies, and Said Shahtahmasebi. 1995. "Morale in old age: Refining the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0(11): 933-943.
- WHO. 2016. "WHO definition of Health." <http://www.who.int/about/definition/en/print.html>.